

獨逸浪漫主義 時代區分

池 明 烈

(獨文科 教授)

[I]

낭만주의는 영국, 프랑스에 있어서 보다는 독일에서 오래 지속되었고 문학활동도 활발하였다. 독일문학사에서 낭만주의의 위치는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순으로 이행하였는데 낭만주의에 선행 또는 후속한 문학사조는 그 개념과 성행하였던 시대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낭만주의는 그 한계가 유동적이며 개념규정도 구구하여 외국인으로서 독일낭만주의를 연구할 경우 대단히 불편한 감을 금치 못한다. 이와 같은 불편감을 덜어보고자 하는 소망에서 독일낭만주의의 시대구분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현재 독일문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일문학사들의 목차에서 볼 수 있는 낭만주의의 시대구분을 보면, (1) 낭만주의를 전기낭만주의(Frühromantik), 후기낭만주의(Spätromantik)로 대별한 것. (2) 전·후기를 <Die Ältere Romantik, Die Jüngere Romantik>라하여 우리말로 번역하기 조차 거북한 명칭. (3) 낭만주의 운동이 활발했던 대표적 지명을 따서 예나 낭만파(Die Jenaer Romantik), 하이델베르크낭만파(Die Heidelberger Romantik)라는 명칭으로 대별한 것. (4) 낭만주의를 양대분하는 방법으로서 초기낭만주의(Frühromantik od. Die Ältere Romantik) 다음 시대를 <Die Jüngere Romantik>라고 호칭하는 대신 <Hochromantik>라고 부르는 경향도 대두하고 있다. Paul Kluckhohn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명칭은 차라리 <Mittlere Romantik>라 부르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고(Paul Kluckhohn: Das Ideengut der deutschen Romantik S. 9) 우리 말로 번역하기도 편하다. 즉 초기·중기로 대분하고 그 후에 후속된 낭만주의를 후기라고 총칭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되며,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구분을 합당한 것으로 결론지으려 한다. (5) 그 밖의 구분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하이델베르크 낭만파 이후 각 지방에서 있었던 문학운동을 차라리 다음 시대로 이양시켜 버리고 <Biedermeier, Junges Deutschland>에 소속시켜 거론하지 않거나, <Andere Spät- und Nachromantiker>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다만 슈바벤지방에서 활발했던 낭만주의시인들만은 높히 평가하여 <Die schwäbische Romantik>라고 별도로 항목을 설정하거나 또는 <Jüngere Romantik>의 말미에 부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6) 그런가하면 이와 같이 번거로운 명칭의 혼란을 피하고 <Die erste Romantik, Zweite und Dritte

Romantik)로 양분하는 편의주의도 있고, (7) 시대구분은 지양하고 낭만주의의 시대적 배경, 예술관·문학이론에 치중하는 부류의 문학사도 있다. (8) 낭만주의를 활동그룹별로 나누어 이를 시대구분함에 있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구구하거니와 또한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중간 시인들 장·파울(Jean Paul), 뢰더린(Hölderlin), 크라이스트(Kleist)를 배치하는 방법도 문학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를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이다. 책에 따라서는 그들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동시대인들(Die Zeitgenossen der Klassiker und Romantiker)이라하여 고전주의 말미, 즉 낭만주의로 이양하기 전에 거론하기도 하고, 반대로 낭만주의를 거론한 다음에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파울과 뢰더린은 낭만주의 시대에 소속시키고 크라이스트만은 분리해서 사실주의 시인들 계열속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의 시대구분과 소속 시인의 배치가 너무 구구 잡다하여 어느 문학사 한 권 만을 읽을 경우에는 불편을 모르지만 몇 권의 문학사를 비교 참고할 경우 대단히 혼잡스러워 낭만주의의 시대구분, 해당 명칭, 소속 시인의 위치 등을 정리 확정지워 줌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낭만주의 문학사적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낭만주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독일문학사들 중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제각기 목차상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독일문학사의 일단으로서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시대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시대구분과 작가분류 비교 :

(1) Fritz Martini: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Erste Auflage 1948.

- XV. Die gegenklassische Dichtung:
Jean Paul, Hölderlin, Kleist
- XV. Die Romantiker
- XVI. Die Dichtung des 19. Jahrhunderts
1. Von der Romantik zur Wirklichkeit

이 책은 戰後 최초로 출간된 문학사이면서도 내용이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고대 게르만 민족 문학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술되어 있어서 40년대 후반과 50년대 초반에 중요한 계도적 역할을 담당한 문학사이다. 그후 판을 거듭하여 1951년에는 3판이 나왔고 1977년에는 현대작가를 보완하여 17판이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격변하는 문학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증보판이 나올 것으로 본다. 비학술적인 사담이지만 필자는 6.25동란으로 부산에 피난중 일본에 가는 인편에 독일문학에 관한 서적구입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부탁받

은 사람은 독문학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무역상인이어서 어느 서점에 들어가 들어놓고 독문학에 관한 책을 달라고 했더니 한 권 주기에 가져왔다는 것이 바로 이 문학사 3판이었다. 그때가 1952년 봄이었으니까 3판이 출간된 다음해 필자는 이 책을 입수하였고 아마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후에 발간된 독일문학사를 소유하게 된 경우라 생각되어 지금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대구분에서 이색적인 점은 <反古典主義的 文學>이라는 항목(XIV.)으로 과도기의 시인 장·파울, 휠더린, 크라이스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3대 시인을 단정적으로 고전주의에 대립적인 시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발간된 문학사들에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중간시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자는 이들 3대 시인이 반고전주의적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는 바이마르는 속명적으로 대립적인 것이 되었다……古典主義의 規準에 굴복하여 古典的 調和의 世界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과 낭만주의에 관해서는 「그들은 낭만파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서 이탈하고 있다. …… 그들은 古典的인 것과 낭만적인 것의 양쪽에 관여하면서 그 어느 쪽에도 同化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독자적인 정신에 따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창작을 反證하는 작품을 썼다(S. 279)」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이 시인들은 <반 고전주의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낭만주의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반 고전주의적 문학>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들이 고전주의에서는 완전히 탈피하려고 분투노력하면서 낭만파에 접근하는 과도적 존재이었기 때문에 離脫의 동기를 결과보다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즉 그들 3대 시인은 古典主義의 人道主義理想과 그 藝術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틀을 타파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장·파울은 小說에서 감정생활의 Phantasie, Humor를 강조하는 주관주의에 의해서 고전주의의 틀을 타파하였고, 휠더린은 내용이 새롭게 확대개방된 抒情語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神性的 힘을 神話的으로 경험함으로써, 또한 크라이스트는 인간이란 불가사의한 요인이 많은 현실 속에서 착각과 인식의 모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知覺함으로써 고전주의의 틀을 타파하였다. 고전주의는 美를 限定하였으나 그 반대로 한정하기 어려운 것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 점에 그들 3대 시인과 낭만파와의 사이에 親近性이 있다는 것이다(S. 280).

낭만파시인(XV.)을 分類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전기·후기로 양대분하는 분류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확연히 項目으로 분류하지 않고 낭만주의의 특색：無限한 것으로의 길——前進的인 綜合文學——憧憬과 이로니——낭만적 현대적 神話的 要因 등을 거론하고, 哲學的 배경으로서 피히테(Fichte), 셸링(Schelling), 슬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의 영향을 略述하면서 예나 낭만파 씨클(Jenaer Romantikerkreis)의 주요 인물로써 F. 슈레겔(F. Schlegel), A.W. 슈레겔(A.W. Schlegel), 바켄로더(Wackenroder), 루트비히 티크

(Ludwig Tieck), 노바리스(Novalis)를 들고 있으며,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낭만파와 구별하기 위하여 예나 낭만파를 所謂 初期浪漫派(die sogenannte Frühromantik)라 명칭하고 하이델베르크 낭만파를 역시 所謂 젊은 浪漫派(die sogenannte jüngere Romantik) 또는 後期 浪漫派(Spätromantik)라 호칭하고 있다(S. 314). 여기서 초기·후기 낭만파라는 명칭 앞에 굳이 <所謂>라는 형용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자가 낭만주의 시인들을 전(초)기, 후기 낭만파로 구분하느니 보다는 예나, 또는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약한 문학서클(Kreis)로 간주하려는 의도라 하겠다. 따라서 項目으로 區分하지 않고 上述한 전기 낭만파 시인들에 관하여 서술하고 전기에서 후기로의 전환점에서 양자간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신사적 운동은 예나 서클에서 그 특징이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위 <초기 낭만파>로 부터 하이델베르크에 특히 많이 집합하였던 소위 <젊은 낭만파> 또는 <후기 낭만파>로 이전해 간다. 그들에 있어서는 民族的·歷史的 體驗과 더불어 宗教的 體驗, 歷史에로의 復歸와 再生의 意志가 결정적인 中心點을 차지하였다. 그 영향은 슈레겔이나 노바리스의 知的 直觀의으로 작용하는 天才들의 주관주의에 비하여 한층 폭이 넓고 大衆的이며 또한 민족적 색채를 띄고 있어서 더욱 깊이 독일인의 教養意識에 감명을 주었다.》(S. 316)

후기 낭만파 시인으로서의 우선 世代移行點에 서있던 劇作家 짜하리아스 베르너(Zacharias Werner)를 소개하고 이어서 크레멘스·브렌타노(Clemens Brentano), 그의 妹벤틀나·브렌타노(Bettina Brentano), 女流詩人 카로리네·폰·귄데로데(Karoline von Günderode), 푸라이드리히·곯트로프·벨셀(Friedrich Gottlob Wetzell), 아힘·폰·아르님(Achim von Arnim), 歷史 神話學者 요셉 괴레스(Joseph Görres), 야콥 그림(Jacob Grimm), 빌헬름 그림(Wilhelm Grimm), 解放戰 당시의 愛國詩人 에른스트 모릿츠 아른트(Ernst Moritz Arndt), 테오도르 코르너(Theodor Körner), 막스 폰 쉰켄도르프(Max von Schenkendorff), 歸化한 佛人 후케(Friedrich de la Motte-Fouqué), <독일의 國民性 Deutsches Volkstum 1810>의 저자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루드비히 얀(Friedrich Ludwis Jahn), 알레만지방(Alemanne) 출신의 시인으로 民衆教育家라고도 할 요한·페터·헤벨(Johann Peter Hebel), 슈바벤 출신의 빌헬름 하우프(Wilhelm Hauff), 슈베르트(Schubert)의 작곡에 의해서 歌謠愛好家들 사이에 알려진, 특히 <Lindenbaum>의 作詞者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빌헬름·뮐러(Wilhelm Müller), 끝으로 낭만파운동의 末尾를 장식한 創造的인 시인이며 小說家인 요셉 폰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와 音樂家이며 法官이면서 독일 최대의 산문작가로 알려진 에른스트 테오도어 아마데우스 호프만(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을 詳論하고 있다.

作家分類에 있어서 異色的인 것은 제16장 <19世紀의 文學> 1. <낭만주의로부터 現實로>

에 아달베르트 폰 샤미소(Adalbert von Chamisso)와 슈바벤파 시인 루드유헤·우란트(Ludwig Uhland), 유스티누스 케르너(Justinus Kerner), 구스타브 슈바프(Gustav Schwab), 에드바르트 뫼리케(Edward Mörike)를 수록한 점이다. 일반적으로 샤미소는 후케와 더불어 <北極星同盟 Nordsternbund>이라는 文學씨클의 주도적 역할을 한 베르린낭만파의 중심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란트, 케르너, 슈바프, 뫼리케는 슈바벤 낭만파에 속하는 시인들로 구분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 Martini는 낭만주의와 관련된 시인들을 서술함에 있어서 그들의 소속 문학씨클이나 시대구분에 치중하지 않고 각 시인들의 특성과 문학배경을 중심으로 分類하였기 때문에 一目瞭然한 정리가 미흡하다는 감이 든다.

(2) Paul Fechter: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1952.

IV. Das Jahrhundert der Klassik

1. Der Kampf um die Sprache
2. Lessing und Wieland
3. Die erste Romantik
4. Goethe und Schiller

V. Zweite und dritte Romantik

1. Hölderlin und Jean Paul
2. Jena und Heidelberg
3. Der Übergang in die Realität

VI. Die erste Moderne

1. Kleist, Grillparzer, Raimund

이 책은 上述한 Martini의 문학사에 이어 50년대에 독일학생들에게 중요한 길잡이 노릇을 하였고 각 시대의 문학사조와 작가를 상세히 소개하여 후속한 문학사의 좋은 先例가 되었다.

Fechter는 낭만파 시인들의 時代區分, 稱號를 일반적인 관례에서 벗어나 第一, 第二, 第三 낭만주의라는 칭호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우선 目次上으로 보아 특색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第一 낭만주의는 고전주의 시대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그것도 괴테, 실러에 앞서 배열하고 있다. 그 이유를 Fecht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슐레겔 형제, 노발리스, 티크 등을 중심으로 한 예나 씨클을 첫번째 낭만파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운동은 이미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낭만주의가 실제로 처음 시작한 것은 본질적으로는 그 이전이다. 낭만주의 운동시대는 Rousseau로 시작하여 Sturm und Drang에 의해서 수용되었고……동시에 헤르더와 하만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점에 달했다. 즉 낭만주의는 괴테나 예나 낭만파에 의해서 또 다시 정신적 영역에 방향전

환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狹義의 낭만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운동은 상술한 운동시대 이후에 비로써 시작한 것이다」(S. 132-133). 그리고 뫼스소가 <나는 매사에 있어서 순간의 기분에 따르겠다(J'aime á ne suivre en toute chose que le caprice du moment)> (S. 133)라고 한 말로써 개인의 낭만주의가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 말은 個人이 유기적인 生活組織에서 가정과 종교, 국가와 모든 문화적 結合에서 分離되기 시작한 것을 뜻하며 개인은 온갖 형태의 문명에 반대하고 온갖 一般的인 義務에서 해방될 자유를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의존하려고 하였을 때 混亂(Chaos)이 시작하였고 이 혼란이야말로 뫼스소가 <自然으로 돌아가라>고 한 말에 의해서 시작하여 그 혼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다(S. 134).

이상과 같은 뫼스소의 자연에로의 의지(der Wille zur Natur), 감정에로의 의지(der Wille zum Gefüh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시인으로 상기한 하만(Hamann), 헤르더(Herder)를 비롯하여 Sturm und Drang 시대의 주역들을 나열하고 있다. 막시밀리안 클링어(Maximilian Klinger), 프리드리히 뮐러(Friedrich Müller), 다니엘 프리드리히 슈바르트(Daniel Friedrich Schwart), 하인리히 레오폴드 바그너(Heinrich Leopold Wagner), 야콥 미하엘 라인홀트 렌즈(Jakob Michael Reinhold Lenz). 그 밖에 <Der Göttinger Heimbund>의 시인들 중에서 루드비히 크리스토프 하인리히 뢰티(Ludwig Christoph Heinrich Hölty), 요한 하인리히 포스(Johann Heinrich Voss)를 들고 있는데 이색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感傷主義時代(Die Zeit der Empfindsamkeit 1740~1780)에 속하는 시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마티아스 클라우디스(Matthias Claudis)를 자연적인 것의 천재성(das Genie des Natürlichen)을 지닌 시인이라 하여 그의 시는 낭만주의는 아니라해도 그 이상의 것이며, 진정하고 직접적인 감정을 진정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낭만주의의 선구적 존재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문학에 최초의 낭만적 파도를 초래한 결정적인 시인은 이상에서 나열한 시인들이 아니라 괴테와 실러라고 결론 지었다.

V. Zweite und dritte Romatik I.에서 뢰더린과 장·파울을 第一, 第二 낭만주의에 소속시키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흔히 표시되는 <反 古典主義> 또는 <中間詩人> 등의 규정도 하지 않고 양자의 특성을 詳論하면서 「Der „Hyperion”은 사건이 진행하는 환경이 고전적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낭만적 小說의 實例이다」, 「Der "Hyperion"은 고전적 환경(das Milieu)으로 置換된 순수한 낭만주의 소설이다」라고 지적하고 이어서 「장·파울을 바이마르의 고전주의와 분리시키고 헤르더와 접근하게 한 요인은 民衆의인 것(das Volksmäßige)에 대한 그의 天性和 民族固有의 것(das Volkhafte)에서 받은 영향이며 教養世界(die Bildungswelt)에서 받은 영향은 아니다」(S. 191)라고 지적하면서 양자가 고전주의와는 멀어지고 낭만주의로 기울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Kleist는 별도로 취급하여 다음 장 VI. Die erste Moderne I.에서 그릴파르쯔(Grillparzer), 라이문트(Raimund)와 같은 계열에 소속

시키고 있음은 이색적이다.

〈2. Jena und Heidelberg〉에서 die zweite Romantik은 예나 낭만파이고 die dritte Romantik은 하이델베르크 낭만파로 구분하고 다른 명칭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第二 낭만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는 슐레겔형제, 슐라이어마허, 티크, 바켄로더, 노발리스를 문학과 철학의 구별없이 소개하고, 이 시대에 女性運動에 力點을 두어 서술한 점이 특징이다. 슐레겔 형제의 처 카롤리네(Caroline)와 도로테아(Dorothea), 슈탈부인(Madame de Staël), 헨리테 헤르쯔(Henriette Herz), 그리고 第3 낭만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활약한 여성으로 베티나 브렌타노, 카롤리네 폰 쿤더로메를 들고 있다. 第三 낭만파에 속하는 시인으로서는 브렌타노, 아르님, 아이헨도르프(Eichendorff)를 상론하였을 뿐 여타의 학자, 시인, 특히 슈바벤낭만파 시인, 해방전 당시의 애국시인, 베르린 낭만파 중 프랑스系 시인을 일괄해서 〈3. Der Übergang in die Realität〉에 포함시킨 것은 구분이 산만한 감이 든다. 이 항목에 소속시킨 사람들 중 싸하리아스 베르너, E.T.A. 호프만에 관해서는 상론하고 있음에 반하여 여타의 사람들은 약술하고 있다: 괴레스(Görres), 그림 형제, 울란트, 유스티누스 케르너, 구스타프 슈바프, 빌헬름 하우스프, 빌헬름 뮐러, 테오도르 쾨르너, 아른트(Arndt), 샴미소(Chamisso), 푸케(Fouqué).

(3) Van Stockum und van Dam: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1954

XXXI. Romantik

115. Allgemeines
116. Die Denker der Romantik
117. Die ältere Romantik
118. Kleist, Hölderlin, Jean Paul
119. Die jüngere Romantik
120. Zacharias Werner und das Schicksalsdrama
121. Die Dichter der Freiheitskriege
122. Schwäbische Romantik

和蘭人 教授 두 사람이 쓴 이 문학사는 각 시대마다 一般論(Allgemeines), 또는 序論(Einleitung)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문학사조의 精神史적 고찰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각 시대 구분과 명칭 및 소속 작가 분류가 정돈되어 있다는 점에서 50년대에 독일학생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다. 분류에 있어서는 우선 괴히테, 셸링, 슐라이어마허와 헤겔을 낭만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철학자로 거론하고, 예나 낭만파를 die ältere Romantik 이라고만 호칭하고, 그 대표적 시인으로 슐레겔 형제, 노발리스, 바켄로더, 티크를 열거하고 있다. 좀 이색적인 것은 중간 시인 클라이스트, 뢰더린, 장·파울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 중간에 배치하지 않고 전기·후기 낭만주의의 중간에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하이

델베르크 낭만파는 Die jüngere Romantik 이라고만 호칭하고 소속 시인으로는 브렌타노, 아르님, 아이헨도르프, 푸케, 샤미쏘, E.T.A.호프만, 그림 형제를 열거하고 있다. 항목을 바꾸어가면서 Werner 와 그의 운명극을 古典的 宿命的 悲劇, 또한 市民的 宿命的 悲劇이라고 重視하고 있음은 異例의이다. 다음에 해방전 당시의 3대 애국시인 아른트, 쾰러너, 쉥켄도르프를 빠짐없이 별도로 소개한 것과, 또 다른 항목에다 슈바벤 낭만파를 소개한 것은 간편한 분류라 하겠고 슈바벤 낭만파 소속 시인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울란트, 유스티누스 케르네, 슈바프, 하우프 외에 뢰리케를 상론한 것은 적절하나 요한 페터 헤벨의 위치는 좀 이색적이다. 대체로 헤벨은 별로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위치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간 시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Glaser/Lehmann/Lubos:

Wege der deutschen Literatur—Eine geschichtliche Darstellung 1961

Die Romantik

Die Jenaer Romantik

Die Heidelberger Romantik

Die Spätromantik

Im Umkreis von Klassik und Romantik/Zwischen Klassik und Romantik

60년대에 교재용으로 독일에서 많이 보급된 후 7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 문학사는 점차 시대구분이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낭만주의의 主流를 우선 지명에 따라 예나 낭만파, 하이델베르크 낭만파로 구분하고, 예나 낭만파에는 괴테, 셸링, 슐라이어마허를 소개한 다음 문학씨클에 참여한 여성들 중 도로테아 바이트(Dorothea Veit), 카롤리네 폰 훔볼트(Karoline von Humboldt), 티크의 누이동생 소피 베른하르트(Sophie Bernhardt), 카롤리네 쾰터로테, 베티나 폰 브렌타노(Bettina von Brentano), 소피 메레안(Sophie Merean), 클레멘스 폰 브렌타노(Clemens von Brentano)의 여자친구를 열거하고, 다음에 주요 시인들로서는 슐레겔 형제, 노발리스, 바켄로더, 티크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음 항목에서 하이델베르크 낭만파에는 괴테, 아르님, 브렌타노, 아이헨도르프만을 소속시키고 여타의 시인은 다음 항목 <Die Spätromantik>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소속하는 시인으로서는 Berliner Romantik 이라는 명칭하에 푸케, 샤미쏘, E.T.A. 호프만, 쉐하리아스 베르너를 열거하고, 해방전 당시의 낭만파 시인으로는 아른트, 쾰러너 두 사람만을 들고 있다. 끝으로 슈바벤 낭만파시인으로 울란트, 하우프, 요한 페터 헤벨, 구스타프 슈바프, 유스티누스 케르너, 볼프강 멘젤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낭만주의 다음 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周邊>의 첫 항목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를 중간기의 3대 시인 크라이스트, 쉴더린, 장 파울을 위해 할애하고 있다. 뢰리케는 사실주의에 소속시켜 낭만주의 시인으로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5) H.A. und E. Frenzel: Daten deutscher Dichtung

Chronologischer Abriß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I. Auflage Februar 1962

이 책은 作品의 發刊年代順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作家를 卍클별로 分類하는 작업은 중시하지 않고 있다. 낭만주의를 <die ältere oder Frühromantik>과 <die jüngere, Hoch-oder Spätromantik> 두 年代로 구분하고 소속 시인의 명단을 脚註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전자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슐레겔 형제 und ihre Frauen, 티크, 바켄로더, 노발리스, 쉘링, 슈테펜, 슐라이어마허를 들고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인물들로서는 아르님, 브렌타노, 아이헨도르프, 괴테스를 들고 있으며, 베르린을 중심으로 모인 die Spätromantik 에 소속하는 시인으로는 아르님, 브렌타노, 아이헨도르프, 클라이스트, 푸케, 샤미쓰만을 들고 있다. 그러나 다음 항목 <Wichtigste Autoren der Romantik>에서는 상술한 작가 이외에도 E.T.A 호프만, 헤벨, 짜하리아스 베르너, 그림 형제, 울란트, W. 뮐러의 작품을 年代順으로 略述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소속 卍클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가 하면 쾰더린과 장 파울은 古典主義時代 작가로 배열하고 있다. 뢰리케는 Biedermeier 시대의 주요작가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6) Hermann Ammon: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in Frage und Antwort 1963

6. Kapitel: Romantik (1797~1830)

- a) Allgemeines
- b) Der alte Goethe. Faust II. Teil
- c) Frühromantik (1796~1806)
- d) Mittlere (Jüngere) Romantik (1806~1815)
 1. Brentano, Arnim, Werner
 2. Heinrich v. Kleist
 3. Dichter der Befreiungskriege
- e) Spätromantik (1815~1830)
 1. Eichendorff, Hoffmann und die schwäbische Schule
 2. Die historische Schule

問答形式으로 구성된 Ammon의 문학사는 독특하여 문학사를 공부하고 나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각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目次上 특색이라고 높이 평가할만한 것은 낭만주의를 初期·中期 後期浪漫主義로 三分하고 年代區分까지 明示하고 있는 점이다. 이 호칭은 우리말로 번역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Jüngere Romantik 을 Mittlere Romantik 으로 표시한 것은 파울 클르크혼의 주장과도 합치한다. 이와 같은 호칭은 본 논문의 결론부에서 답습될 것임을 미리 지적해 둔다. 다만 소속 시인 분류에 있어서는 몇 가

지 이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b) Der alte Goethe. Faust II. Teil 은 기묘하다. 즉 문답 679단으로는老피테를 낭만주의 계열에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Frage: In welchen Worten drückt Goethe seine literarische Wendung zur Romantik selber aus?

Antwort: "Wir sind vielleicht zu antik gewesen. Nun wollen wir es moderner lesen."

Modern bedeutete damals romantisch. (S. 144)

다음에 d) 2. 에서 하인리히 클라이스트를 中期 낭만파에 소속시킨 것은 다른 문학사에서 볼 수 없는 분류이며 타당성도 없다고 본다. 또한 5. Kapitel: Klassik d)에 월터 린을 e) 에 장 파울을 배치한 것도 外見上 모순이라고 본다. 다만, 문답 629과 643, 645에서 그들과 고전주의와의 관계에 단서를 붙이기로 하였다.

629. Frage: Ist Hölderlin Klassiker oder Romantiker?

Antwort: Er nimmt eine Mittelstellung zwischen den beiden literarischen Richtungen ein.

Als "ein in die nordische Schöpfung geworfener griechischer Geist"(Schiller über Goethe) steht er Weimar nahe; doch ist seine Auffassung der Antike dionysisch, also rauschhaft-begeistert, die von Schiller und Goethe apollinisch, d.h. klar und still. (註 S. 132)

643. Frage: Welche literarische Richtung setzt Jean Paul während der Zeit der Klassik fort?

Antwort: Die aus der Aufklärungsepoche hervorgegangene Zeitrichtung der Empfindsamkeit (Rousseau).

645. Frage: Wie verhält sich Jean Paul zu Weimar?

Antwort: Er schließt sich innig an Herder an, von dessen Humanitätsbegriff er durchaus erfüllt ist. Dem plastischen Gestalten von Goethe und Schiller steht der große Humorist fern. (註 S. 135)

끝으로 d) 3. 에 해방전 당시의 시인을 소속시킨 것은 무방하다 e) 1. 에 아이헨도르프, 호프만을 배치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이 보인다.

(7) Brenner/Bortenschlager: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19. Auflage

Die Romantik (1978 bis 1835)

Allgemeine Grundlagen

Die romantische Philosophie

Die ältere Romantik ("Jenaer Romantik")

Die jüngere Romantik ("Heidelberger Romantik")

Nachfolger der Romantik:

Die Dichter der Befreiungskriege

Die schwäbischen Romantiker

Einfluß der Romantik auf Wissenschaft und Kunst

Das Drama der Romantik: Heinrich von Kleist

독일과 오지리 양국 학생용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계속 개정판을 내고 있는 이 책은 한국에서도 보급되고 있는 편이다. 문장이 난해하지 않고 내용이 간략하면서도 상세하게 구분 정리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문학사이다. 이 책에서는 일반론 다음에 철학적 배경으로서 피히테, 셸링, 슐라이어마허를 거론하고 낭만주의 문학을 우선 Die ältere Romantik, die Jüngere Romantik 으로 양분하였는데 이와같은 명칭과 병기해서(Jenaer Romantik) (Heidelberger Romantik)이라고 중복 표시한 것은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40년대 50년대에 발간된 문학사에서 사용한 구분과 명칭이 분명치 못하거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고 논란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한 記述方法이라고 본다.

에나낭만파와 하이델베르크낭만파 소속 시인은 通例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즉 전자에는 슐레겔 형제, 티크, 노발리스, 바켄로더를 후자에는 브렌타노, 베티나 브렌타노, 아르님, 피레스, 아이헨도르프, 호프만을 소속시키고 있다. 기타의 시인은 <낭만주의 후속자>로 규정하고 해방전 당시의 시인으로 아른트, 피르너, 쉐켄도르프 세 사람을 모두 거론하고, 다음에 베르린 낭만파에는 Nordsternhund 소속 시인 푸케와 샤미소 두 사람만을 들고 있다. 끝으로 슈바벤 낭만파에는 울란트, 구스타브 슈바프, 유스티누스 케르너, 하우프를 소속시키고 있으며 그 밖에 학문 예술 영역에서 낭만주의에 기여한 사람들은 별도로 거론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그림 형제,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Caspar David), 프리드리히, 필립 오토 룽에(Philipp Otto Runge), 요한 프리드리히 오버베크(Johann Friedrich Overbeck), 프란츠 포르(Franz Pforr), 요제프 뤼리히(Josef Führich), 모리츠 폰 슈윈트(Moritz von Schwind), 음악가 칼 마리아 폰 베버(Carl Maria von Weber), 알베르트 로칭(Albert Lotzing), 프란츠 슈베르트(Franz Schubert), 로베르트 슈만(Robert Schumann),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후고 볼프(Hugo Wolf)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스트를 낭만주의 연극의 대표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목요연한 분류와는 박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편 뢰더린과 장 파울은 前章 고전주의의 끝에서 Die Zeitgenossen der Klassiker und Romantik 로 소개하고 있어서 클라이스트 위치는 유동적이다. 피리케도 다음 章 <von der Romantik zum. Realismus 1830 bis 1850>에 배치하고 있다.

(8) Georg Ried: Wesen und Werden der Deutschen Dichtung 22. Auflage, 1972

Dichtung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 (18./19. Jahrh.)

Heinrich von Kleist—Friedrich Hölderlin—Jean Paul—Friedrich Richter

Dichtung der Romantik (18./19. Jahrh.)

Fichte—Schelling—Schleiermacher—Hegel

Die ältere Romantik: Friedrich Schlegel—August Schlegel—Wilhelm Wackenroder—

Ludwig Tieck—Friedrich von Hardenberg (Novalis)

Die jüngere Romantik: Clemens Brentano—

Achim von Arnim—Bettina von Arnim—Ernst Theodor Amadeus Hoffmann—
Joseph von Eichendorff—Wilhelm Müller—Adalbert von Chamisso—Friedrich de
la Motte Fouqué—Ernst Moritz Arndt—Theodor Körner—Max von Schenken-
dorf—Friedrich Rückert

Die schwäbische Romantik: Ludwig Uhland—Gustav Schwab—Justinus Kerner—
Wilhelm Hauff

이 책은 순한 문체로 쓰여져 있으며 시대구분과 작가와 작품에 관한 서술이 簡明하여 의 국학생들 사이에 호평을 받을 만하다. 目次만 보아도 내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만큼 시대구분과 작가 분류가 소상하게 되어 있다. 분류에 있어서 중간기의 시인 3인을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간문학>이라는 항목하에 배속시킨 것은 무난하다. 철학적 배경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3대 철학자 외에 헤겔을 첨가한 예는 드물기는 하나 다른 문학사에서 도 있었다. 낭만주의를 3대분한 것은 가능한 구분이라 보며 작가분류도 적절하다. 해방전 당시의 시인 3인을 Die jüngere Romantik 에 소속시킨 것은 그들의 관심이 민족과 조국이 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슈바벤낭만파에서 괴리케를 제외하고 다음章 <사실주의에로의 도중문학>에 배속시킨 것은 요한 페터 헤벨을 또한 이에 배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재고의 여지가 남아 있다.

(9) Karl Brinkmann: Die deutsche Romantik.

Dr. Wilhelm Königs Erläuterungen zu den Klassikern Band 266

Die ältere Romantik

Die jüngere Romantik

Die Dichter der Befreiungskriege

Die Spätromantik

Die schwäbische Romantik

Andere Spät- und Nachromantiker

Jean Paul, Hölderlin und Kleist

이 小冊子는 독일낭만주의에 관한 해설서인데 해설담당자 칼 브링크만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종전에는 낭만주의를 <die ältere und die jüngere Romantik>으로 兩大分하였으나 새로운 연구는 이를 3期로 구분하여 <die ältere oder Frühromantik, die mittlere oder Hochromantik und die Spätromantik>라 호칭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독자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Die ältere Romantik: Berlin, Jena 가 그 활동 중심지이었으나 예나에서 전성기에 달했기 때문에 때로는 die Jenenser Romantik 이라고도 하며 주요인물들은—피히테, 슐레겔 형제, 티크, 바켄로더, 카롤리네 슐레겔, 노발리스이다.

Die jüngere Romantik: Dresden 과 Heidelberg 가 활동중심지이나 하이델베르크에서 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에 Heidelberger Romantik 이라고도 하며 주요 인물들은—브렌타노, 아르님, 프리드리히 크로이저(하이델베르크大學教授, 神話研究家), 카롤리네 폰 쿤더로데, 그림 형제—1809년 브렌타노와 아르님이 베르린으로 이사하여 親交하게 된 클라이스트, 물러, 푸케, 호프만의 大學教授로 있었던 슬라이어마하 아이헨도르프, Marburg 의 歷史政治學者 자리히니(Sarigny)를 들고 있다.

Die Dichter der Befreiungskriege: 아르트, 테오도르 리르너, 쉘켄도르프 외에 프리드리히 루드비히 얀, 하인리히 슈테펜스, 아이헨도르프를 소속시키고 있다.

Die Spätromantik: Wien 에서 F. 슐레겔과 도로테아 바이트(Dorothea Veit)를 중심으로 모여든 짜하리아스 베르너, 아이헨도르프, 마아더, 자일러와 베르린낭만파 샴이쓰를 들고 있다.

Die schwäbische Romantik: 유스티누스 케르너, 올란트, 구스타프 슈바프, 하우스프, 피리케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

Andere Spät-und Nachromantik: 빌헬름 뮐러 이외에는 별로 거론되지 않는 군소시인들 뿐이다.

(10) Kurt Rothmann: Kleine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Reclam Nr. 9906[3] 1978

7.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 (1794~1811)

Hebel—Jean Paul—Hölderin—Kleist

8. Romantik (1798~1835)

a) Ältere oder Frühromantik

Fichte und die Programmatiker F. Schlegel, Novalis und A.W. Schlegel—Wackenroder—Tieck—Novalis—Bonaventura

b) Jüngere, Hoch-oder Spätromantik

Brentano—Brüder Grimm—Eichendorff—E.T.A. Hoffmann—die Berliner und die schwäbischen Romantiker

9. Biedermeier, Junges Deutschland und Vormärz

a) Biedermeier (1810~1850)

Mörke—andere

b) Junges Deutschland und Vormärz (1853 bis 1848)

Heine—andere

이 책은 최신판에 속하는 문학사이며 간략하게 쓰여졌고 가격도 저렴한 Reclam 판이기 때문에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너무 간략해서 외국인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아 다른 문학사를 읽고 정리단계에서 이용할 만 한 가치는 있다. 특히 간단한 용어의 주해, 개념규정에 관한 인용문 등은 기왕에 출간된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장점이며, 낭만주의 시대구분

과 작가분류도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간 시인으로 요한 케터 헤벨(1760~1826), 프리드리히 뢰터링(1770~1843), 장 파울(1763~1825),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1777~1811)를 낭만주의 이진에 배치한 것은 지극히 편리한 구분이며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라는 항목설정은 다른 문학사에서 <反 古典主義와 浪漫主義>라고 표현한 것에 비하여 온건하다. 왜냐하면 상기한 시인들의 작품은 고전주의의 양식개념에 종속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 파울을 제외하고는 괴테, 실러의 그늘 밑에서 종신하였다고는 해도 고전주의 또는 낭만주의의 강령을 추종하지 않고 당시의 여러 가지 문학양식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독자적인 특색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그들에 관한 時代區分과 呼稱은 합당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헤벨(Hebel)은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어서 그를 과도기 시인들에 소속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낭만주의 지속기간을 1798~1835로 한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문학사와 같고 학파별 시대구분과 명칭은 선행한 문학사들을 참고하여 異議가 없도록 종합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初期낭만파를 Ältere oder Frühromantik 이라고 이중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後期낭만파를 Jüngere, Hoch-oder Spätromantik 이라고 삼중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이미 Frenzel의 문학사에서도 보아왔다. 후기 낭만파에는 베르린 낭만주의 시인과 슈바벤 낭만주의 시인을 포함시켜 낭만주의를 전기 후기로 兩大分하여 전기 후기 낭만주의를 Ältere Romantik/Jüngere Romantik 또는 Frühromantik/Spätromantik 로 표시하고 근래에 와서 사용되기 시작한 Hochromantik 이라는 명칭도 첨가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거의 총망라한 감이 있다. 다만 지명에 따른 명칭 Jenaer Romantik/Heidelberger Romantik 을 삭제한 것은 후기 낭만파를 주도적 역할을 한 하이델베르크 낭만파에 국한하지 않고 베르린 낭만파와 슈바벤 낭만파를 이에 소속시켰기 때문에 지명에 따른 명칭을 부여할 경우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삭제한 것으로 추측된다.

각 파 소속 시인 분류에 앞서 철학적 배경으로서 괴테만을 거론한 것은 부족한 감이 있으며 쉐링과 슐라이어마허의 영향도 당연히 거론되어야 한다. 다음에 전기낭만파중 예나에서 활약한 낭만주의 이론가와 작가로서 F. 실레겔, 노발리스, A.W. 실레겔을 선치하고 다음에 베르린에서 활약한 시인 바켄로더와 디크를 소개한 것은 일반적인 순서라 하겠다. 다음에 후기낭만파 중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약한 시인을 브렌다노, 아르님, 괴레스, 그림 형제, 아이헨도르프로 선정하고 베르린을 중심으로 활약한 시인을 샴이쑈, E.T.A. 호프만, 루케, 에른스트 모리츠 아른트를 소개하고 있는데 解放戰 당시의 시인 중 아른트만을 소개하고 괴르너, 쉐켄도르프를 탈락시킨 것은 애국시인을 과소평가한 감이 든다. 끝으로 슈바벤 낭만파시인으로 니콜리우스 레니우(Nikolaus Lenau), 루드비히 울란트, 구스타프 슈바프, 빌헬름 바일링어(Wilhelm Waihlinger), 빌헬름 히우프, 에드바르트 피리케를 열거하였는데 레니우를 낭만주의 시인계열에 소속시킨 것은 이색적이며 피리케는 다음

Biedermeier 에 소속시키면서도 슈바벤 낭만파의 일원으로도 간주한 것은 공평한 평가라 하겠다.

(III)

낭만주의를 정확하게 年代區分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몇몇 문학사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첫째 中間期詩人들의 활동시기를 1794~1811년(Rothman)으로 정한 것은 휠더린이 Hyperion 초고를 Thalia 에 발표한 1794년에서 Kleist 가 사망한 1811년까지로 계산하였다고 본다. 다음에 낭만주의를 1798~1835년(Rothmann, Brenner) 또는 1797~1830년(Ammon)으로 정한 것은 쉴러의 <Horen>誌(1795~1797)가 廢刊되고 Athenäum(1798~1800)이 발간된 첫째 또는 그 전년부터 시작하여 독일에 자유주의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830년(파리 7월 혁명) 또는 <青年독일派>의 문학활동을 금지한 독일연방의회의 결의가 발표된 1835년을 전환점으로 본 것이다. 낭만주의를 다시 초·중·후기로 3분하여 年代를 분할한 문학사는 별로 없으나 Ammon 의 구별에 따르면 초기낭만주의(1796~1806), 중기낭만주의(1806~1815), 후기낭만주의(1815~1830)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細分은 약간 유동적일 수 있다. 대체로 초기는 1801년 노바리스가 사망한 때를 고비로 쇠퇴하기 시작해서 W.슈레겔이 베르린 강연(Berliner Vorlesung)을 끝낸 1804년까지로 본다. 같은 해에 브렌타노는 하이델베르크로 이사를 하였다. 중기는 1805년 아르님도 하이델베르크로 이사하여 브렌타노와 합작으로 <Des Knaben Wunderhorn>을 발간하기 시작한 해부터 1815년 해방전이 끝나고 독일연방이 결성된 해까지를 말한다. 그 다음이 후기낭만주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年代區分을 참고삼아 [II]에서 비교분석한 낭만주의 시대구분과 작가분류를 정리해 본다.

(1) 中間期의 시인은 장·파울, 휠더린, 클라이스트 3인만으로 한정한다. Hebel 도 이 시기에 소속시킨 예도 있으나(Rothman), 그와는 반대로 Martini, van Dam, Ried 는 그를 슈바벤파에 소속시키고 있다. Kleist 의 위치가 유동적인 것은 그가 180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Adam Müller 와 <Phöbus>를 발간하였기 때문에 中期에 소속시키는 경우도 있다(Frenzel, Ammon). 그런가 하면 낭만주의 극작가로(Brenner) 취급하는 예도 있으나 이미 [II]에서 Martini 의 주장을 인용한 바와 같이 중간기의 시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에 이들의 활동시기에 대한 명칭은 [II]장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구구하나 그 나름대로 제각기 一理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런 명칭보다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간의 시인들(Die Dichter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로 표시하는 편이 무난하다고 본다.

(2) 낭만주의는 이미 위에서 사용한 명칭을 적용하여 <초기낭만주의(Frühromantik)> <중기낭만주의(Mittlere Romantik)>, 후기낭만주의(Spätromantik)>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낭만주의를 2期(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경우 전기낭만파는 활동시기나 주요시인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후기낭만파의 경우 활동시기와 주요시인의 범위가 넓고 문학활동의 내용과 경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기 이후의 모든 낭만주의 시인들을 후기에 소속시키는 것은 異質的인 것을 무리하게 同質化하는 결과가 되겠다. [Ⅱ]장에서 列擧한 문학사들 중에서도 Martini, Fechter 와 같이 내용의 충실에만 우선 주력한 終戰 직후의 저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명칭은 다르다 해도 3期 또는 그 이상으로 세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 명칭을 초기·중기·후기 낭만주의로 단일화하려는 이유는 첫째 地名을 따서 <하이델베르크 낭만파> <에나 낭만파> <슈바벤 낭만파> <베르린 낭만파> 등으로 구분할 경우 여타 지역의 낭만주의 시인은 도외시되는 감이 들고 시대적 차이감도 없게 된다. 다음에 <die ältere Romantik, die jüngere Romantik>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낭만주의를 2期로 구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세분할 경우 3期는 <die Spätromantik> 또는 <die schwäbische Romantik>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그럴바에는 차라리 Früh—, Mittlere—Spät 로 표시하는 편이 일관성이 있고 時期區別도 명확하며 아울러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편하다. 한 가지 부연해 둘 것은 中期를 Hochromantik 라고 호칭한 예가 있으나(Frenzel, Rothmann) 全盛期를 뜻하는 Hoch—는 결국 中期와 같은 意味內容이다.

(3) 각 시기의 소속 시인의 분류는 [Ⅱ]장에서 비교한 문학사들을 참고하여 공통성이 높은 주요 인물만을 수록한다.

a) 哲學的 背景 : 피히테, 셸링, 슈라이에르마허(헤겔은 다음 寫實主義로 이행하는 시기에 거론)

b) 초기낭만주의 : 슈레겔 兄弟, 바켄로더, 티크, 노바리스

c) 중기낭만주의 : 브렌타노, 아르님, 벤틀나 폰 아르님, E.T.A. 호프만, 아이헨도르프, 샴이쑈, 후케, 아른트, 페르너, 쉐켄도르프(해방전 당시 애국시인들), 게레스, 그림 兄弟, Z. 피르너, W. 뮐러

d) 후기낭만주의 : 復古主義의 彈壓下에서 祖國統一의 길은 멀어졌고, 초기낭만주의의 사상적 일대 비약, 중기낭만주의의 조국과 민족문화와 과거에 대한 熱狂은 冷却하고 시민의 식은 형식적이며 即物的인 생활감정으로 변해가는 시대 즉 <die Biedermeierzeit>의 생활감정을 시화한 것은 주로 슈바벤 낭만파 시인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초기·중기 낭만파와 구별되어야 한다. ——주요시인들 : 우란트, G. 슈바프, J. 케르너, W. 하우스, 피리케, 헤벨

이상에서 독일낭만주의 시대구분, 명칭 및 소속시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Zusammenfassung**Versuch einer Neugliederung romantischer Literatur****Myung-Yul CHI**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Begrenzung, Einteilung und Benennung der Zeit deutscher Romantik. Die deutsche Romantik wird chronologisch eingeteilt in die Frühromantik und die Spätromantik, aber es gibt verschiedene Begrenzungen, Einteilungen und Benennungen. d.h. Je nach dem Verfasser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wird die deutsche Romantik chronologisch unterschiedlich eingeteilt und benannt. Diese Differenzierungsvarianten machen das Studium der Romantik schwer, vor allem dem ausländischen Germanisten, falls er mehrere Literaturgeschichten vergleichend liest. Um diese heiklen Probleme zu lösen, versucht diese Arbeit eine eigene Klassifizierung nach Autoren:

I. Die Dichter zwischen Klassik und Romantik (1794~1811)

Jean Paul-Hölderlin-Kleist

II. Die Romantik (1798~1835 od. 1797~1830)

1) Frühromantik (1798~1804)

Fichte-Schelling-Schleiermacher

Die Brüder Schlegel-Wackenroder-Tieck-Novalis

2) Mittlere Romantik (1805~1815)

Brentano-Arnim-Bettina von Arnim-E.T.A. Hoffmann-Eichendorff-Chamisso-Fouqué-

Arndt-Körner-Schenkendorff-Görres-Die Brüder Grimm-Zacharias Werner-W. Müller

3) Spätromantik (1816~1835)

Uhland-G. Schwab-J. Kerner-W. Hauff-Mörrike-Hebel